

# 광주·전남도 美 쇠고기 반대 시위 ‘촛불집회’ 번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광우병 대책위)는 오는 10일 오후 7시부터 광주시 동구 급남로 삼복서점 일대에서 촛불시위를 갖기로 했다. 광우병 대책위는 이에 앞서 8일 오후 광주YMCA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광우병 대책위는 6일 오후 광주에서 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책위는 기존에 진행하던 서명운동에 대한 성과를 오는 7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대 집회가 계획됨

에 따라 발표를 연기하고 이날 긴급 대회의를 가졌다.

여수YMCA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광우병쇠고기 수입저지 여수시민행동’도 오는 9일 오후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와 별도로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수입 반대집회도 열린다.

서울지역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체반대시위연대’ 광주·전남도 임은 10일 오후 3시 급남공원(옛 한국은행)에서 300여명 규모의 반대집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 평화로운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만약 촛

불집회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할 것을 권유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체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 ‘미친소닷컴’은 6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3일 행사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모임 등 전국 1천여개 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 긴급대책회의’를 결성한 뒤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에 합류했다.

또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어느 축산농의 비극

브루셀라병에 한우 14마리 폐사  
빛더미 절망 속 합평 4대 자살

소를 키우며 부농의 꿈을 일궈 온 40대 농부의 희망이 비극으로 끝났다. 지난 5일 새벽 5시30분께 합평군 나산면 이모(42)씨의 집에서 이씨가 음독, 사망했다. 필리핀 이주여성인 이씨의 부인 A(35)씨와 자녀 3명은 이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부인·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와 함께 축산 부농의 꿈을 키워온 이씨의 축사가 주인을 잃은 채 텅비어 있다. /위지량기자 jwji@kwangju.co.kr

지체장애인이 이씨가 소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 이씨는 농·축산자금을 대출받아 우선 소 7마리를 사서 길렀다. 소 7마리는 어느새 22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이씨는 필리핀 여성 A씨와 결혼해 자녀 3명(아들 1명, 딸 2명)까지 낳았다.

소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이씨는 논 농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축사와 소를 늘려갔다. 그러나 ‘소 50마리를 키우 처치식 호강시키겠다’는 이씨의 꿈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기르던 소 22마리 중 5마리가 지난 2006년 11월 감전 사고로 폐

사됐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나머지 소 17마리 중 14마리가 법정전염인 ‘브루셀라 병’에 감염돼 살처분됐다. 전염병 발병지로 분류되면서 소 사육도 6개월 이상 금지됐다. 살처분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조금 받았지만 농축협 대출금에 사채 등 7천300여만원의 빚만 남았다.

한우 사육에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씨는 후유증에서 헤

어나오지 못했다. 우울증세마저 보이던 이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우값 폭락으로 인해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주민들은 “소와 가족밖에 모르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정말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 나원침 (7499) 김종두



다중의 건축·산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개도독 너무 심하게 때렸다가...

○개 주인이 자신의 개를 훔쳐가는 개도독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히는 바람에 괴상 방법으로 도둑과 함께 경찰서행.

○장성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조선족 A(49)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사는 B(50)씨 소유의 개 사육장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강아지 한 마리를 훔쳤다는 것.

○개 사육업자 B씨는 강아지를 훔쳐 가는 조선족 A씨를 목격하고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려쳐 두개골 경막외출혈(뇌진탕)에 빠트렸다고.

○경찰은 개 주인의 신고로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에서 상처자국이 발견되자 급히 병원으로 옮겨 수술토록 하는 한편, B씨에게 외상 발생 경위를 추궁한 끝에 둔기를 휘두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과잉방위를 인정해 입건.

/장성=정필수기자 bungy@

## ‘광우병 괴담’ 확산 막아라

‘17일 휴교’ 등 유포...광주·전남 교육당국 대책 고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괴담’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교육당국과 학교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괴담 중 대표적인 것은 ‘17일 등교 거부 또는 휴교’, ‘인터넷 종량제로 금주 폭등’, ‘광우병 전염 소만 수입된다’ 등이다. 이 같은 괴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오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상황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학교에 대한 공문 발송 등 특별한 지침은 일단 보류했다.

교육청은 광주의 경우 등교 거부 날짜인 17일이 5·18민중항쟁 28주년 전야제가 열리는 날이란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9일과 10일 여수와 광주에서 ‘미국산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점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나구동 광우여교 교장은 “학생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 직원을 에게 토요일인 17일 비상대기를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오전 일선 고등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괴담’과 관련한 상황을 체크했으나 큰 움직임은 없는 것을 파악했다”며 “학생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 앞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상무고 교사는 “고등학교생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문자에서 오가는 말들을 농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다”며 “반응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을 긴급 소집,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이동 성폭행 예방기구인 ‘호남해바라기 이동센터’는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아동 성폭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우리 아이 지키기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아동 성폭행 살해 땀 최고 사형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행법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일반 주거지역의 PC방 바다면적 합계기준을 150㎡에서 500㎡ 미만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내정상급 여성골퍼들이 "합평라이프스리CC"에 모인다.

대회명: 2008년 K6국민은행 Star Tour 1차대회  
기간: 2008년 5월 9일(금) ~ 5월 11일(일) 3일간  
주최: K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발행일: 오후 1시 ~ 4시까지 (X-PORTS 대점)  
참가인원: 국내정상급 프로 & 120명  
총상금: 2억원 (3월 54일 스포츠포탈레이)  
주최: 국민은행, 한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